

종합·해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당직자들이 25일 낮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큰절을 올리고 있다. <왼쪽>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주민센터 앞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손학규 전 대표, 한영숙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수위 장관 재선거 민주당 이찬열 후보 지원 유세가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이 수도권 2곳과 충북 등 중원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면 한나라당은 당내 소장파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당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내용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조기전대론이 다시 당내에서 거론되면서 정몽준 지도체제의 붕괴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여권은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야당 공세를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경남 양산에서 민주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패한다면 한나라당은 연일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5일 현재 막판 선거 판세는 한나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강원 강릉과 민주당이 앞선 경기 안산상록을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평론가 jkpark@

헌재 29일 미디어법 선고... 여야 촉각

결과따라 정국 또 한차례 소용돌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미디어 관련법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을 두고 수 차례의 입법전쟁을 치른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국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의 주장대로 미디어 관련법 처리 과정에 대한 위법 결정이 나올 경우 법안 재제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을 거듭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해 여야는 그 어느 측에서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의 기류를 탐색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기각 결정시 미디어 관련법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미디어 관련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운 절차를 밟아 다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답답하게 현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지내년부터 1년 동안 진행해 온 미

디어 관련법 투쟁의 대미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 지지투쟁의 선봉에 섰던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에는 상당한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 결정시 민주당 강경파가 '재개정 투쟁'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온건파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당 지도부의 위치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더 많은 점에서 민주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유윤근 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며 최소한 재투표 논란이 제기된 방송법은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경남 양산 패배면 후폭풍 클 듯 민주당 3곳이상 승리하면 주도권 확보

재보선 결과 향후 정국

10·28 재·보선 결과 정국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질까.

25일 정치권에는 3일 남은 재보선 결과에 따른 당내 정국 구도와 당내 역할 구도 변화 등을 놓고 갖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지역에 수도권은 물론 영남·충청·강원까지 포함되면서 재·보선 이상의 의미가 부여된 까닭이다.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5:0'이나 '4:1'로 이길 경우 내년 지방선거까지 한나라당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 집권여당의 재·보선 연패 징크스를 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당으로서 정국 운영에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직을 승계한 정몽준 대표의 당 장악력도 튼튼해진다. 당 일각의 조기 전당대회 요구 목소리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2' 승리로는 현상 유지

수준을 벗어간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5개 선거지역 중 4개가 애초 한나라당 보유 지역이었던 만큼 승리라고 주장하기 애매한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 대표 체제까지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패나 한 곳에서만 승리하면 선거 패배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여권을 견제하기 위한 힘을 갖지 못하고 여권에 정국 주도권을 넘겨줘야 한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해질 것이다.

5곳 선거구 중 당초 총복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지역구가 한나라당이 보유했던 지역이지만 그동안 재보선 분위기는 야당이 우세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2곳에서 이겼다고 해도 '승리'라는 표현을 쓰기에 무리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민주당

은 3곳 이상에서 승리하면 재보선 연승의 기록을 이어가게 된다. 이 경우 국정감사로부터 계속된 여권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4대강 문제와 효성그룹 비자금 문제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정몽준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 및 4대강 사업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하는 방법 등으로 연일 정국을 민주당 위주로 견인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권의 세중시 수정론에 치명타를 입히는 등 각종 논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당내 역학구도 측면에선 정세균 대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다. 당 전체 승패와 관계 없이 민주당이 수위 장관 안에서 승리한다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손학규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보다 강화되면서 정세 복귀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양산에서 친노 후보가 승리한

다면 민주당 내 친노 목소리가 커지고 당 밖의 친노세력과 함께 현 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수도권 2곳과 충북 등 중원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면 한나라당은 당내 소장파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당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내용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조기전대론이 다시 당내에서 거론되면서 정몽준 지도체제의 붕괴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여권은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야당 공세를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경남 양산에서 민주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패한다면 한나라당은 연일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5일 현재 막판 선거 판세는 한나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강원 강릉과 민주당이 앞선 경기 안산상록을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평론가 jkpark@

광주시장 입지자 기반 다지기 본격화

이용섭·조영택·양형일 등 단합대회·토론회

내년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들이 조심스럽게 출마 뜻을 내비치는 등 본격적인 기반 다지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5일 "광주시민을 모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보고 싶다"며 사실상 광주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제청장관 건교부장관, 행정부총관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에 많은 빛을 주고 있는 만큼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아무리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피하지 않겠다"며 "우선 광주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고, 예산국회가 끝나는 연말에 시민들의 뜻을 물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겠다"고 말했다.

지역구에서는 이 의원이 지난 24

일 지지자 모임인 '담쟁이 산악회' 회원 700여명과 무등산 정화활동을 펼친 것을 두고, 광주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다른 후보군인 조영택 의원도 지난 24일 당원 한마음 대회를 갖는 등 조직 강화에 나섰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현 박광대 광주시장과 맞붙었던 조 의원은 이날 서구 유덕동 광학초등학교에서 지역구인 서구갑 당원 1천여명과 단합대회를 가졌다. 조 의원은 또 '희망세상 봉사단'을 꾸려 민생 현장을 돌볼 계획이다. 조 의원은 봉사단 발대식에서 "새로운

목적과 비전을 제시하고 중산층·서민의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학 교수직까지 내용은 양형일 전 의원은 포럼을 통해 마음을 끌어안고 있다. '시민포럼 새물결' 이사를 맡고 있는 양 전 의원은 시민사회 각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딜레이 씨지 토론회'를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전개하고 있다. 첫 토론회는 지난 23일 이주여성들을 초청해 자녀교육 문제와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기자 jwpark@kwangju.co.kr



이용섭 의원, 조영택 의원, 양형일 전 의원

Advertisement for Kim Young's 'Real Estate Problem Solving' course. It features text about the course's success rate (10 out of 7 students pass), the number of students (5,849),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cademy. It also includes a list of course topics like 'Real Estate Exam' and 'Real Estate Law'.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san Gongin Jeonggasa'. It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land and houses, with details on price and location.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offered.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Budeongsan Investment Club'. It lists several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land and houses, with details on price and location.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offered.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omecon Real Estate'. It features a large headline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Solar Power Plant Site Urgently Needed) and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land and houses, with details on price and location.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offered.

Advertisement for 'IPALG Hybrid Exterior Water Remodeling'. It features a large headline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UP 됩니다!' (Building's lifespan and value increase!) and lists various services offered, including exterior water remodeling and energy-saving measures.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offered.